

「컴퓨터문화」일깨운 개척자

電算研설립 촉매제 역할

매일경제 92.6.7. 『人物 탐구』

과학자하면 으레 꼼꼼하며 융통성 없고 샌님같은 사람들을 연상하곤 한다. 특히 말이 통하지 않는 기계나 컴퓨터를 다루는 학자나 연구원들의 경우 더욱 그렇다.

정보문화의 달인 6월을 맞아 성기수 박사(58.前시스템공학연구소장)을 찾아본 느낌 역시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듯 싶었다.

게다가 그는 고집 또한 만만치 않게 보였다.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고집스러움은 그가 외곬임을 어렵지 않게 느끼게 했다. 고집이 그를 특징짓는 성격이라면 개척자 정신과 성과제일주의는 그가 일을 처리해온 첫번째 원칙이다.

시스템공학연구소장 재직시 연구성과에 따라 각 연구팀을 대접, 팀장에게 전권을 주기도 하고 심하게 간섭하기도 했던 이같은 성과주의와 항상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개척자 정신 때문에 때로는 후배들로부터 「너무하다」는 불평을 사기도 했지만 불모지나 다름없던 국내 컴퓨터계를 일으켜 세우는데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이같은 그의 성격과 원칙은 지난 67년 국내 처음으로 전자계산연구실을 설립하게 했고 이 연구소를 통해 끊임없이 컴퓨터이용·응용기술을 개발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70년 6월 첫 데이터 통신의 개막을 비롯해 한글입출력시스템, 각종 고지서 전산화시스템, 증권전산화 시스템, 병원관리 종합시스템, 88올림픽 경기정보시스템 등이 모두 이 연구소를 통해서 나온 작품들.

『글쎄 아직 멀었어요. 걸음마 단계입니다. 일류학술지에 실린 논문편수가 세계 38위 수준이라니까요. 더 뛰어야 해요』

현재 국내의 컴퓨터 관련 과학기술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한 그의 답변은 단호했다.

성 박사는 童顏이다. 게다가 같은 또래 나이에서 있을 법한 깊게 파인 주름살도 보이지 않

는다. 희끗희끗해진 머리칼을 제외하면 회갑이 가까워온 그의 나이는 다 어디로 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의 지내온 내력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 고향은 경북 성주. 부모들이 농사일과 장사를 겸해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먹고 사는데 그다지 불편은 없을 정도였다는게 그의 어린 시절 기억이다. 별다른 어려움없이 공부에만 열중하던 그는 그러나 학창시절 때 극심한 좌·우익 이데올로기의 틈바구니 속에서 좌절을 맛보았다. 6·25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는 아버지와 형을 잃는 고통을 체험하면서 자신은 허허벌판으로 내동댕이쳐진 아픔을 당하기도 했다.

『그다지 유쾌한 얘기는 아닙니다. 중학교(대구사대부중)2학년 때였을 거예요. 하루는 선배들이 찾아와 「불난 집에서 공부만하고 불끄는 일은 하지 않을거냐」고 하더군요. 젊은 혈기로 6개월 가량 좌익의 행동대원 노릇을 했지요. 결국 체포되어 학교도 그만두고... 고향에 가서 농사지었지요. 6·25 때는 강압에 의해 마을 인민위원장직을 맡은 아버지가 수복이 되자 좌익으로 몰려 즉결처분당했고 당시 서울대에 다니던 형은 인민군 의용군으로 끌려가 행방불명이 됐어요』

방향을 거듭하던 그가 책을 다시 잡은 것은 전쟁이 끝난 직후인 53년 여름. 자신의 표현대로 「살기 위해 공부를 결심한 것」이라는 그는 검정고시를 거쳐 54년 봄 서울대에 입학한다. 전공은 화학. 그러나 이 전공은 1년 후에 기계공학으로 바뀐다. 화학약품 냄새를 참을 수 없었다는 것이 전과 이유다.

대학을 졸업하고 美 하버드대에서 우주선의 비행역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그가 지금은 평생의 업이 되어 버린 컴퓨터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귀국을 앞둔 63년.

『귀국하려 해도 막막하더라고. 당시 국내에는 내 전공 과목을 살려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곳이 없었거든. 학위 준비할 때 사용했던 컴퓨터의 위력에 놀란 적이 있었는데 마침 이 위력을 국내과학기술 연구에 이용해보자는 생각이 들더라고』

현재의 그를 있게 한 전공에 관한 세번째 변신은 이렇게 시작됐다.

얘기가 자연스레 국내 정보산업에 관한 방향으로 흐르자 그의 말에는 한결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영토확장경쟁을 하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 이제는 기술경쟁 시대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많은 기술소유권을 보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장기적인 안목과 기술개발에

관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의 말을 요약하면 대충 이렇다. 혼자 몸으로 1인 3역을 하면서 시작했던 기술개발연구실을 현재 4백 50여명의 연구원이 기술개발에 몰두하는 시스템공학연구소로 바꾸어 놓은 성 박사는 최근 소장직을 물러나 연구위원으로 들어 앉았다.

「큰짐을 던 기분」, 「해방감」, 「그러면서도 왠지 허전한 마음」이란 말로 현재의 심정을 대신한 성 박사는 이제부터는 연구와 후학지도에 몰두하느라 소홀히 해온 저술활동에 새로운 인생을 걸어 볼 생각이라며 환하게 웃었다.